

‘양띠 해’ 새 아침에

전재규(본회 이사장)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재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국호스피스협회 산하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해오신 모든 회원님들과 김수지회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임원님들께 뜨거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각 개인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기도 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가 인류의 흐름이라 하면 문화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성장과 산물의 축적입니다. 문화(Culture)는 경작(Cultivate)의 결과입니다. 역사가 없으면 내가 없고, 문화 창조의 사명을 수행하는 기능이 없으면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호스피스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호스피스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 속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새싹으로 변화하여 아름다운 자태로 그 모습을 땅 위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성장시켜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할 것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였을 때, 온 세계가 함께 흥분하였던 때가 엇그제 같더니 벌써 2003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태음력으로 재미년(癸未年)이며, 양띠해입니다. 양(羊)만큼 착하고 순한 동물은 이 세상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뿔이 있어도 무기로 쓸 줄 모르고, 발톱이 있어도 핏줄이 없으며, 이빨이 있지만 물지 않습니다. 한자의 아름답고(美), 착하고(善), 옳음(義)이

모두 양(羊)자로 시작되는 사실만 보아도 양의 좋은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양은 성서에 맨 처음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성서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순진하고 착하여 목자가 없으면 야생동물과 생존경쟁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함께 물려다니며 공동생활을 할 때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공동대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년 양은 한국호스피스의 서광의 징조일 것입니다. 한국호스피스는 분명히 순진하고 착한 양떼와 같이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막대기를 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정부에서도 호스피스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한호협 집행부 또한 남다른 결심과 각오로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양의 해를 맞이하여 한호협에 속한 우리 모두는 한 울타리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호스피스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2003. 1. 1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장 전 재 규